

## 사료산업과 함께한 소중한 28년



김 구 현

前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상무이사

이 글은 (주)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28년 동안 근무해온 김구현 상무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 본지에 기고한 글이다.

김 상무는 충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국제경영학 MBA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사료협회 기획 조사부에 입사하면서 사료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농림수신부 곡물수입 업무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주)카길애그리퓨리나에는 지난 1984년 1월 1일 곡물수입 부장으로 입사하여 회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난 7월 31일 상무이사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했다.(편집자註)

### ■ 퓨리나와의 첫 인연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단미사료회사에서 원료영업을 하던 저는 1979년 초에 퓨리나를 처음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퓨리나 사무실에는 이미 화려한 카펫트가 깔려 있었으며, 또한 직원들은 당시 주한 외교사절이나 마시던 큰 통의 다이아몬드 생수를 자유롭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머슴을 살아도 퓨리나라는 부자 집에서 한번 살아 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 ■ 4년 후 꿈이 실현 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축산을 전공한 젊은이가 퓨리나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 저로서는 하나의 꿈이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맥이 없는 황무지에서 어떻게 하면 저의 역량과 실력을 키워 가면서 저를 사료업계에 알리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현대양계, 월간양계 잡지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이라는 글을 꾸준히 기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료곡물의 수입권이 한국사료협회와 축협중앙회에서 각 사료회사에 이관되는 시점에서 곡물수입, 시장분석 전문가가 필요 했던 시절에 저는 당시 퓨리나 구매부장 이셨던 김기용 회장님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퓨리나를 향한 저의 열정은 4년 후인 1983년 말에 드디어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 자랑스런 퓨리나 철학

퓨리나에서의 저의 직장생활은 제 인생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 하자”, “꾸꿍이 서자”, 활짝 웃자”, “떳떳이 살자”의 퓨리나 철학 속에서 언제나 가정과 가족을 중시하는 회사 문화가 삶의 질을 바꾸어 놓기 시작 하였습니다.

“25년을 배우고”, “25년을 일하며”, “25년을 봉사”한다는 윌리엄 H 덴포드씨의 창업 이념은 저 자신의 감성과 영혼을 늘 새롭게 하는 인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 ■ 카길의 새로운 문화

2001년 카길과 퓨리나가 하나의 회사가 된 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서로 존중하는 마음”, “헌신적인 섬김의 약속”, “성공을 향한 열정”은 저의 인생에 또 하나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카길에그리퓨리나의 한 가족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늘 회사에 감사하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 ■ 안정된 생활을 이루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의 가족은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세심한 지원으로 자녀의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45년간 회사를 건강하고 1등 회사로 키워 오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사랑과 은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 훌륭한 리더가 있어 행복한 회사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회사의 윗분들을 평소에 잘 못 모시는 직원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좀 불임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카길 퓨리나 선후배님들 간의 교량역할을 해온 저로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김기용 회장님에 관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동안 회사가 성장 해오는데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지만 만약 김기용 회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1년의 갑작스런 변화를 잘 적응 하면서 월간 14만 톤의 회사로 성장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 임직원들은 지금과 같이 변함 없는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을까? 새 역사를 창조한 중국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단계에 왔을까? 한국 사료산업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

또 하나는 2008년 우리 회사를 이끌고 가실 새로운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김기용 회장님의 탁월한 선견지명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보균 사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앞이 안보였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시고 덕장으로서의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훌륭한 리더가 있어 행복한 회사... 그 곳이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

### ■ 과분한 사랑과 행복했던 회사 생활

우리 회사는 정말 훌륭한 전통과 문화에 걸맞게 각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많은 곳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생각지 못한 자질과 인품을 접할 때 마다 저 자신은 많은 것을 느

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많은 실수와 부족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웃음으로 감싸주신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가족 여러분은 28년간 저의 인생에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분으로 부터 배우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저는 진정 행복한 카길퓨리나 맨이었습니다.

### ■ 그리운 친정 식구들과 소중한 인연의 뿌리

제가 28년간 회사 생활의 기본과 그 뿌리는 친정인 한국사료협회로 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많은 축산·사료업계, 학계, 정부, 각종 국·내외 축산 단체, 주한 외교사절의 축산·사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하는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2년간 농림수산부 파견근무를 함으로서 농림수산부 여러분들과 친분은 물론 사료산업, 정책 전반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사료협회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끊임없는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 끊임없이 사랑을 주신 분들...

한국사료협회에서 기획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시절, 중앙대학교 김성훈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의 대학원 은사이기도 하셨지만, 그야 말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소탈 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1981년 초 어느 날... 하루는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시는 허신행 박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국제곡물시장"에 관한 자료인데, 김구현 과장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메스컴에서만 종종 뵈던 허 박사님과 그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 하였으며, 30 여년이 지난 지금도 허 박사님은 변함없이 겸손과 상생 협력의 아름다운 정신을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 김 박사님, 허 박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농림부수산부 장관이 되셨을 때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격언을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갖 시련과 역경속에서 뜻을 이루고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첫 직장 어르신이었던, 최인환, 한휘언 사장님, 석준호 사장님께서 다리를 놓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으며, 그 고마움에 다시한 번 지면을 통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 맺는 말

앞으로도 저와 저의 가족은 늘 겸손한 자세로서 주위의 모든 분들로 부터 배우고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열심히 제 2의 인생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늘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